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東西大新聞

제173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The Dongseo University Press

발행·편집인 장제국 / 주간교수 오종서 / 편집국장 김경은 / 동서대신문사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산 69-1 TEL.(051)320-2141 FAX.(051)320-1361 / 인쇄처 부산일보사 (월간)

건학이념
기독교정신의 구현

교 훈
진리·창조·봉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 : 18

ETRI, 공동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위해 손잡아

▶우리 대학과 ETRI의 MOU 체결 ▷사진출처 – 포토뉴스

지난 4월 3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우리 대학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상호 이해 및 인재 양성 업무협력 협정서를 체결했다.

우리 대학과 ETRI 간의 MOU를 체결을 통해 반은 대학원에서, 반은 연구원에서 디지털 신기술 연구 및 실습하는 '학·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만든다.

이날 협정식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박종현 부원장, 박세명 기획본부장, 정일권 콘텐츠연구본부장, 박창준 CG/Vision 연구실장 등과 우리대 장제국 총장, 이병국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ETRI에서는 우리 대학에게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콘텐츠, 지능형 로보틱스 등) 분야의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 및 공동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학연 교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자원 공동 활용 및 공동사업 추진 ▲지역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체계 공동 구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이날 ETRI와 우리 대학은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학·연 협동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할 시 대학원의 생활과 ETRI 연구원들의 지도하에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관련 전공 분야는 ETRI의 연구 분야에 해당되는 기초 공학 및 응용공학 전문분야 모두를 포함하여 운영하며,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韓國電子通信硏究院)은 1976년 12월에 건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신가치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등의 국가의 국력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다.

ETRI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4개의 연구·정보통신을 포함한 부서들과 함께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14개 중 4개의 연구소에서는 주요 본부를 두고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소를 기반으로 ETRI는 세분화된 연구개발을 위해 ▲KSB 융합연구단 ▲SDF 융합연구단 ▲DMC 융합연구단을 구성했다. 각 연구단 안에서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도메인지식이 융합된 지능정보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교통 시스템 개발, 각종 축산 질병, 국방 핵심부품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 및 반도체 플랫폼 구축 등 4차 혁명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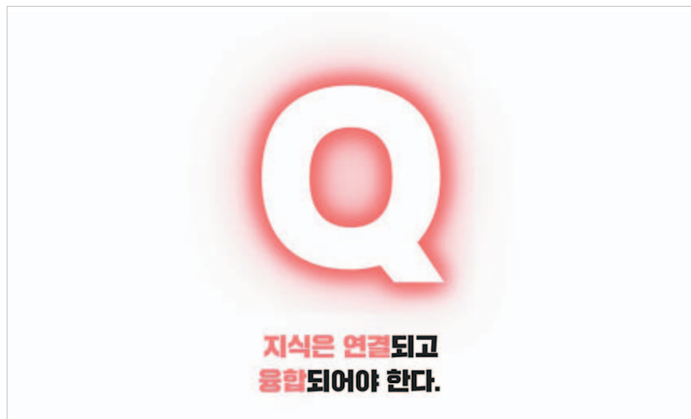
이번 협정에 장제국 총장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해 매우 기쁘다"라며 "또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은 양 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TRI 김명준 원장은 "동서대학과 ETRI 간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무한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Q College 1기 첫 시작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기대



▶우리 대학 Q College

지난 4월 5일, 장제국 총장은 지역 사회 안에서 대학 위기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제국 총장은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하기 위해 우리 대학 안 'Q College'를 개설하여 융합인재 양성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5월에 접어들며 우리 대학 안에서는 Q College 1기를 모집(5/10~28) 하며 Q College의 시작을 알렸다.

Q College는 스스로 도전과제를 정하고(Question), 답을 찾아나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를 키우기 위한 기숙형 도전 스쿨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본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릭터(본캐)'를 만들어가면서, 열정만 있다면 Q College에 입학하여 1년 동안 'X-Class',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퀀텀점프 도전 학기제'를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끼와 열정을 살려 도전하는 '서브 캐릭터(부캐)'를 만들 수 있다.

Q College의 교육 과정으로는 공통교과(X-Class,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퀀텀점프 프로젝트 1-5) ▲마케팅 ▲디자인 ▲IT ▲디지털콘텐츠 ▲광고 ▲인문 ▲예술 분야의 연계전공선택(21~24학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차세대 융합 교육은 자기주도적인 교육과 π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미국 L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미국 샌안토니오 St. Mary University ▲중국 상하이 상해 공정대학 ▲중국 우한 중남재경정법대학 ▲일본 도쿄 조사이 대학 ▲일본 후쿠오카 ▲일본 경제대학 핀란드 오울루대학 ▲리투아니아 Mykolas Romeris University ▲베트남 하노이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인도 수라바야 Petra Christian University 등 기숙사, 항공비를 지원받으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가자들의 입학 혜택으로는 도전 공모전 장학금, 퀀텀 점프 프로젝트 연수 장학금, 퀀텀 점프 프로젝트 공모전 장학금, 동서 아너 소사이어티 Q 장학금 등으로, 다양한 혜택 안에서 유학을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Q College 측에서는 '메타버스 캠퍼스(Metaverse Campus)'를 구축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며 교육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 밝히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1기 참가자들에게는 면접기간이며, 3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 이상)에게 1년간 2번씩 주어지는 Q College의 상세 정보로는 Q Colleg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부산국제교류재단, ODA 공동 발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할 것

▶공동 협력사업 업무협약 조인식 1

▶공동 협력사업 업무협약 조인식 2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12일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지역 공공외교 및 국제개발 협력사업(ODA) 추진을 위해 지역 내 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지역 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협력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제국 총장, 우경하 교수, 남호수 교학부총장, 김희경 International College 학장, 제점숙 동아시아학과 책임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는 정종필 사무총장, 연경심 개발협력팀장, 전미경 교류 협력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국제화를 표방하며 성장해 온 우리 대학교에 부산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올해 '국제개발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관 및 전문가들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맞춤형 교육, 자문·컨설팅을 비롯한 인큐베이팅, 전문가 인재풀(Pool) 구성, ODA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안에서는 ▲부산 도시 기반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사업 및 교류 활동 ▲공공 외교 및 개발협력 분야 사업 기획과 수행, 분야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양 기관 간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의 상호 교류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개발 협력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부산시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자매도시 인턴십 교류(부산–일본 대학생 인턴십 교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인턴십 파견) ▲글로벌 단기 인턴십 운영 ▲국제(금융) 기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극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전 과정을 선택하거나, 전체 이수하여 해양 수산에 관한 노하우를 국내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편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연구·산학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이에 적합한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International College의 우리 대학 특성화 전공, 동아시아학과와의 많은 교류가 기대된다.

이번 국제개발 협력사업 공동발굴에 대해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나라 개발협력 규모 및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 지역 내 개발협력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부산 지역 OD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참여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산 내에서 체결된 협력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더불어 장제국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와 국제화 역량을 활용하여 함께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양 기관은 물론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2021년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 개최

생중계 통해 학부모님들과 질의응답시간 가져

우리 대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26일 오후 7시, 우리 대학 총장과 김정선 총괄부총장, 송강영 학생 취업지원처장과 함께 '2021년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초청 총장 간담회는 신입생 학부모 45명분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온라인 줌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리 참석을 신청한 45명의 학부모들은 소중한 자녀들이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있고, 장래 전망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초청 총장 간담회는 자녀의 진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초청 총장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설명 ▲우리 대학 역사 및 교육성과 안내 ▲교육시스템, 취업, 장학금 안내 ▲학부모 질의응답 ▲기념품(스타벅스 기프트콘)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주로 간담회에서는 교육 환경과 안전한 방역태세를 설명하고 대학의 실상과 장기 비전 등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매년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초청 총장 진로설명회를, 올해에는 소규모 간담회를 열면서 우리 대학의 성과와 첨단 시설, 교육 프로그램 및 코로나19 방역 방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우리 대학의 다양한 첨단 시설과 해외 캠퍼스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줌 대화창,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으로 실시간으로 접수됐다.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 모습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시간은 셔틀버스, 학생식당, 기숙사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문의가 많았다. 또한 신입생들의 소속감 고취 방안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의 제안과 질문이 이어졌다.

줌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학부모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간담회를 지켜보며 댓글 창에 각종 문의사항을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의 답변을 경청했다.

이에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 인성교육, 국제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개개인의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후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국제화 교육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달란트 개발해 글로벌 무대에서 쓰임 받는 인재로 키우겠다"라며 "학부모님들도 우리 대학 홍보대사가 되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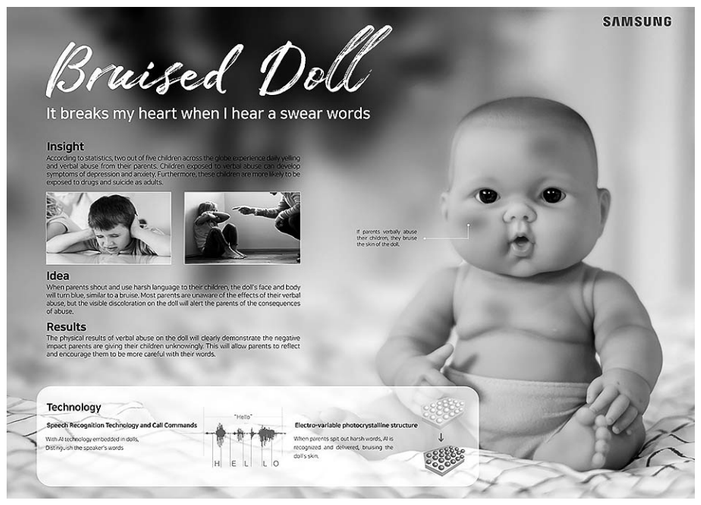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는 유튜브 https : //youtu.be/nHjiInckZPo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광고홍보학과, Clio Awards 은상 수상

<세계 3대 광고제>

올해 수상작 '멍드는 인형', 언어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



▶수상작 'Bruised Doll(멍드는 인형)'

▶류도상 교수와 윤지혜, 권정아, 박재민 학생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펼쳤다. 세계 3대 국제 광고제인 '2020·2021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에서 은상(Silver Awards)을 수상했다.

클리오 어워즈는 프로와 학생 구분 없이 오직 창의성만을 평가하고 수상작을 발표한다. 칸 국제광고제, 뉴욕 페스티벌과 함께 국제 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이다.

1959년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 Ltd)의 주최로 '미국 텔레비전·라디오 광고제'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며, 1963년부터 현재까지 'Clio Awards'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올해 수상작 멍드는 인형(Bruised Doll)은 류도상 교수(광고홍보학과) 지도로 4학년 권정아, 김로아, 박재민, 윤지혜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만든 작품이며, 우리 대학교 LINC+ 사업단 캡스톤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멍드는 인형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 폭력의 유형 중에서도 언어폭력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인형'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언어폭력은 아이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이러한 언어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80%는 아이의 부모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말이 훈육인지 폭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멍드는 인형은 부모의 목소리와 부모가 말한 단어를 인식하는 삼성의 AI 기술을 인형에 접목시킨 것이다. 부모의 말이 고함, 혹은 욕설일 경우에 인형의 몸과 얼굴에 파랗게 멍이 든다. '멍'이라는 시각적 장치로 언어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는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고 자신의 언어로 아이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게 되며 부모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한다.

광고홍보학과 류도상 교수는 "디자인대학에서 광고홍보학과로 옮기고 난 뒤 처음으로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세계 3개 광고 공모전에서 뜻하지 않게 은상까지 받아서 너무 기쁘다."라며 "출품할 때는 Winner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모두 다 우리 학생들이 가을학기 수업과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무리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광고하면 TV 광고와 인쇄광고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광고는 기존의 전통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Solution이 화두인 세상이다. 기존의 상업적인 광고와 더불어 각 기업마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없이 기업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을 한 것이 주요한 관건이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광고홍보학과 4학년 권정아 학생은 "학과 실습수업을 팀원들과 방학까지 시간을 내가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결과로 연결되어 너무 기쁘고, 끝까지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Reddot Awards에서 지난 6년 동안 총 13팀이 Winner로 수상했고, 20년 뉴욕 페스티벌 국제 광고제에서 Winner 수상,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5년 연속 총 6개의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최은석 기자
dmstjr1526@gmail.com

동서 AI·SW 아이디어 대회 시상식

AI·SW 개발 역량 강화 및 취업 경쟁력 제고

▶2021년 동서인 AI·SW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1학년도 동서 AI·SW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총 50팀 90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4월 8일 중간발표 및 멘토링(22팀), 4월 28일 최종 발표 및 심사(12팀) 순으로 진행됐다.

멘토링과 중간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에서는 안병구 대표(레드래빗), 이경용 대표(앱틀즈), 이대석 팀장((주)매직내니), 장원태 교수, 이상곤 교수, 고관표 교수, 류도상 교수, 박성환 교수, 최민구 교수, 박영준 교수 등 총 10명의 심사위원(내부 심사위원 7명, 외부 심사위원 3명)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은 5월 4일 뉴밀레니엄관 SW중심대학사업단 상상스퀘어에서 열렸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으로 총 9팀이 수상하였으며, 소프트웨어학과 소속의 임호균 학생과 이은채 학생으로 구성된 'AIDS' 팀이 '객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손그림 의류 검색 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 팀의 '객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손그림 의류 검색 시스템'은 검색에 사용할 이미지가 없거나 옷의 실루엣만이 기억에 남을 때 직접 손으로 그려서 의류 아이템을 검색하는 아이디어로 실용성과 함께 재미를 더한 아이디어이다. 'AIDS'의 팀장인 임호균 학생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장려상을 받은 '스타일매치(Style-Match)'의 팀장 서인회(디자인학부) 학생은 "이번 동서인 AI·SW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더 나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약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주어진 기회 그 자체에 의의를 두었다. 이번 경진대회가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뜻밖의 좋은 결과가 찾아온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스타일매치' 팀은 '코디를 어려워하는 20~30대 남성을 위한 AI 코디 컨설팅 앱'이라는 아이디어로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AI·SW 개발 능력 향상, 학부생의 AI·SW 개발 역량 강화 및 취업 경쟁력 제고, AI기반 SW개발에 대한 동기 유발을 통해 전공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AI·SW 기반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AI·SW 관련 교내·외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AI 기술들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최은석 기자
dmstjr1526@gmail.com

K-MOOC 우리 대학 1개 신규 선정

디자인대학 김경원 교수의 '실전 타이포그래피' 강좌

▶디자인대학 김경원 교수 강좌 포스터

▶K-MOOC 포스터

▷출처 – K-MOOC 홈페이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우리 대학 1개 강좌가 신규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대학, 기관 등의 우수한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개별강좌 자율분야에서 김경원(디자인대학) 교수의 '실전 타이포그래피' 강좌가 선정되었다. 이 강좌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15주 차(주당 3시간)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루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경원 교수는 홍익대학교와 런던의 킹스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공부했고, 이 전공을 되살려 디지털 매체와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김경원 교수는 "코로나 상황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K-MOOC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 강좌가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 학교에서 이미 2018년도부터 강옥선 교수님, 이현석 교수님께서 K-MOOC 강좌를 개발, 운영했던 실적도 있었고,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답했다.

'실전 타이포그래피' 강좌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기본개념 ▲표현적 타이포그래피 ▲기능적 타이포그래피 ▲실전에 적용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좌는 정보를 글로 전달함에 있어서 타이포그래피의 규칙을 익히고, 다양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타이포그래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안했다.

현재 커리큘럼의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5월 중순 인터뷰를 한 시점에서는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경원 교수에 의하면 전공 학생이 들어도 좋지만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 학생이 들어도 도움이 될만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시별로 현장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나 기초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구상 중이다.

김경원 교수는 타이포그래피에 관해 "디자인에 대해 일반 대중의 관심이 많아진 것과 같이 타이포그래피 또한 전문 디자이너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 같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누구나 이미지와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가 쓰는 폰트와 같이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활자를 어떻게 잘 배치하고 조합하는가에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날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로 표현하는 시각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정의를 강조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념과 정의는 시대에 맞춰 늘 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김경원 교수는 앞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될 학생들에게 "그래픽디자이너, 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라면 타이포그래피를 반드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모두가 디자인에 대해 손쉽게 말하고 누구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를 익히고 사용하는 것과 감각에만 의존해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요일에 아빠는 '짜장라면' 요리사가 될 수 있지만 아빠가 셰프는 아니다. 셰프가 만드는 요리와 집에서 조리해서 만드는 요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강좌는 일반교양으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타이포그래피 이야기와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주요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모두 다루고 있다. 타이포그래피가 궁금한 학생이라면 레시피를 찾아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수강하시면 된다. 디자인 전공자라면 꼼꼼하게 기초부터 다듬는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우리 학교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서도 2개 강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강좌는 전공기초 분야에서 강옥선(영어과) 교수의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 강좌와 자율 분야에서 이현석(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 특성'이며, 지금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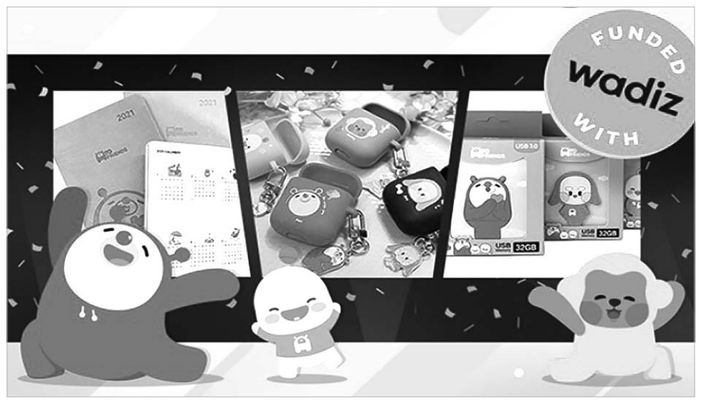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은 영미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사랑, 정체성, 고독, 자유) 탐색을 통해 인간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원서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별 시의 주제와 관련된 삽화를 그려 넣어 학습의 수월성을 높였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주요 화두를 제시하고 삽화와 더불어 쉽게 이해하게 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 특성'은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 타 장르, 예술사조 작풍과 혼성적 연출에 대해 분석하여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문 예술적, 대중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석 기자
dmstjr1526@gmail.com

'아토프렌즈' 와디즈 펀딩 출시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의 상생 추구



▶아토프렌즈(ATOFRIENDS) 와디즈 펀딩

우리 대학 기업 애니모션이 자체 개발한 교내 대표 캐릭터 '아토프렌즈(ATOFRIENDS)'의 굿즈가 와디즈 펀딩(WADIZ)을 통해 출시된다. '아토프렌즈'는 지구에 불시착한 '아토'와 친구들이 모험을 떠난다는 스토리, 그리고 친숙하면서도 귀여운 외형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학교의 대표 캐릭터로 발탁되며 와디즈 펀딩을 개시하게 되었다.

아토프렌즈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북극에 떨어진 외계 곰돌이 '아토', 아토와 노는 게 제일 신나는 '아띠', 남아메리카의 대장 원숭이 '아몽', 스릴을 즐기는 롭이어 토끼 '아로', 아토의 껌딱지 '뚜' 등 5개의 인물이 등장한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애니모션은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 우주를 여행하는 아토프렌즈를 일상 속 작은 소품들로 제작했다.

제품 구성은 아토프렌즈 에어팟 케이스(키링 포함), 아토프렌즈 USB, 아토프렌즈 다이어리(만년형), 2021 아토 아띠 다이어리, 2021 캘린더, 아토프렌즈 뱃지, 아토 아띠 L자 파일, 드로잉 노트, 메모패드 등 9개이면서 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했다.

에어팟 케이스는 네 명의 아토프렌즈 공식 컬러를 토대로 TPU 실리콘을 사용했고, 아토프렌즈 USB는 라바 PVC 소재로 만들어졌다. 아토프렌즈 다이어리(만년형)는 페이지마다 아토프렌즈의 귀여운 일상이 담겨있으며 하드커버, 월별, 주별과 넉넉한 프리노트 100장(20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토프렌즈 맥시멀리즘 패키지는 본 가격 30% 혜택과 더불어 마우스패드, 에코백, 스프링노트를 추가 증정했다.

아토프렌즈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는 학부 교수들의 지도 아래 디지털콘텐츠학과 학생들과 학교 기업 애니모션이 함께 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마진보다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꿈꾸는 우리 대학 및 학교기업 애니모션의 비전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들은 어느 제품에나 활용할 수 있고, 여러 형식의 콘텐츠로 재창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디지털 시대의 답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우리 학교 기업 애니모션은 '아토프렌즈' 등의 캐릭터 IP 개발 및 OSMU(One Source Multi-Use) 사업, 캐릭터 IP 활용 공모전, 부산시 청소년 애니메이션 캠프, 부산시 북구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아토프렌즈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보다 큰 규모의 상생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토프렌즈 와디즈 펀딩은 5월 3일 13시부터 5월 17일까지 목표 금액 500,000원보다 큰 1,069,000원으로 목표 금액 대비 2배 이상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펀딩 금액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최은석 기자
dmstjr1526@gmail.com

글로벌 취업을 노리는 동서인들 주목!

2021년 합격자에게 듣는 K-Move 스쿨연수과정

▶2021년 K-Move 스쿨 연수생 모집 포스터

▶설명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인 K-Move 스쿨이 2021년 연수생 모집을 했다.

우리 대학은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미국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 취업알선, 국내외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 응시료, 일부 비자수속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 K-Move 스쿨 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7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를 희망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재학생 18학번 권민재입니다. 현재 4학년으로 졸업작품 준비에 있으며 졸업준비위원회 콘텐츠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K-Move 스쿨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K-Move 스쿨을 신청하기 전에 아너소사이어티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참가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3학년 1학기 때 미국 연수를 가게 될 기회가 생겨 K-Move 스쿨 이전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포함해 2번째로 가보는 미국행이었지만 갈 때마다 설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미국 연수를 통해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고 계속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가 생길 만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기억이 좋게 남아있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던 도중 K-Move 스쿨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해외취업 방법이 많이 있는데 K-Move 스쿨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K-Move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유학을 떠날 때 최소 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K-Move 스쿨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부담을 덜게 되면 인턴십에도 원활히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국내 취업이 아닌 왜 해외취업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A. 해외연수 기간 동안 해외 취업에 관한 정보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고, 미국과 한국 모두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국내보다 수평적 조직문화가 가장 보편적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생각과 영감을 자유롭게 표출해내야 하는 디자이너로는 이런 수평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보단 국외로 나가는 것이 제 존재감이나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더 넓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K-Move 스쿨 연수과정에 합격한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3학년 때 국내 교류 프로그램으로 짧게나마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것이 제 강점이 되어서 면접 때도 이런 경험을 살려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K-Move 스쿨은 해외취업을 위한 과정이니까 토익이나 지원한 국가의 언어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수준의 언어능력이 요구되나요?

A. 아너소사이어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학생들이 평균 토익 700~900점 정도였는데, K-Move 스쿨은 합격자들에게 취업용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자들에게 그 정도로 높은 어학능력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과 열정, 취업 의지에 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K-Move 스쿨 신청서 작성이나 면접 등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4월에 열린 K-Move 스쿨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K-Move 스쿨에 관심있거나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K-Move 스쿨 설명회에 참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코로나로 해외취업 길이 많이 좁아졌는데 해외취업이 걱정이 되진 않나요?

A.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지금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중엔 영영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K-Move 스쿨 연수과정에 지원하고 해외취업을 하는 것에 고민은 없었습니다.

Q. K-Move 스쿨 참여를 고민하고 있거나 해외취업에 관심 있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우리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은 종류도 많고 학생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ASP SAP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 아너소사이어티Q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두려워하지마시고 신청해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학교 생활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 지은 한계를 넘고 K-Move 스쿨이라는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해외취연수사업 K-Move 스쿨 운영기관 평가에서 2017~2019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2021 K-Move 스쿨의 6개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연수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2020년에는 해외취업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책임교수 안하나

100세 시대에 준비된 시니어운동처방학과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운동처방학과 졸업생이자 우리 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책임교수 안하나입니다.

Q.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시니어운동처방학과는 건강 100세를 꿈 꾸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학과이며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화에 따른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 그리고 운동 상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 100세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Q.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부분이 비슷할 듯한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해 이후 치료의 목적인지 아니면 질병과 상해 전 예방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는 사고나 상해 이후 치료의 목적이 크다면, 운동 처방은 상해 이후 운동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 등을 운동을 통해 예방하고 개선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Q.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관련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국가자격증으로는 스포츠 지도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시니어운동처방학과는 시니어라는 특성에 맞게 주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와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으로는 스포츠마사지, 스포츠 계열, 경기지도사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자격증은 교과목 내에 취득하게 됩니다.

Q.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인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이 인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퇴행으로 오는 상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민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증진 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함께 증가하고 그로 인해 헬스케어 시장과 피트니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건 의료 계열에서조차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 진로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 및 보건소 등 보건 의료 분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 오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 진학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관련되어 직업을 가지시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 진학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건강증진을 우선시하며 더불어 타인의 건강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증진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면 누구나 우리 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서 운동전문가로 그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정주연 수습기자

방학 때 뭐 하지?

다가오는 여름 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사진출처 – app 매거진

학기가 끝나고 찾아오는 방학은 지친 학교생활을 달래주는 휴식기이기도 하지만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봉사 실적까지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도 많아지는 추세다. 사회적거리두기로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공허해진 만큼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을 채워보는 게 어떨까?

 # 손재주가 있다면

장난감 키트로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봉사,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색칠공부 책을 만드는 ▲색칠공부 책 제작 봉사,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마스크 기부 봉사 등 취미와 봉사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으니 손재주가 있다면 키트를 제작해 기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 교육에 관심 있다면

미래희망기구에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빈곤 국가에 전래동화를 번역해 전달하는 ▲어린이 도서 영어 번역 봉사, 네이버에서 지식iN을 통해 초·중·고등 학습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지식iN 교육 기부 봉사활동 등 비대면으로 그동안 쌓은 배움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있다.

 # 일상 속 불편함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들이 걱정이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찰칵 찰칵,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높은 가격의 점자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대출해서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점차 책 타이핑 봉사 ▲점차 책 낭독 봉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 달기 봉사 등 주변에 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아 바꾸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손쉽게 시작하는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험을 채워보자.

자격증

직무 관련 자격증은 직무 능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스펙을 쌓아 취직에도 도움이 된다. 전공 관련 자격증이 아닌 누구든 취득해놓으면 취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알아보자.

 # 컴퓨터 활용능력

1, 2급으로 나뉘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격증인 만큼 다양하게 활용되고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워드프로세서

기업 등에서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다. 컴퓨터 활용능력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으나 사무직에게는 워드 사용이 필수적이니 미리 취득해 놓는 게 좋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의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으로, 응시자는 기본, 심화, 두 가지 종류 시험에 응시하며 시험 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진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한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코레일,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 등에서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취업박람회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들이라면 방학을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취업 박람회를 통해 기업을 알아보고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꼭 고학년이 아니더라도 저학년도 취업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정보를 얻는다면 일찍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면 2021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청년의 꿈, 금융이 열다'에 참석해보는 게 좋겠다. ▲화상면접 ▲채용상담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으로 구성된 이 행사는 채용 일정, 채용 절차부터 기업 인재상, 핵심 역량까지 금융권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의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이미지 및 스피치의 준비를 도와준다. 이 행사는 13개의 은행, 7개 금융 투자 기업, 11개의 보험 기업, 7개의 주요 카드사, 11개의 주요 금융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 금융 취업 박람회다.

그린 뉴딜 산업분야 기업에 구직을 희망한다면 ▲2021 그린 뉴딜 온 택트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린 뉴딜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해당되는 미래 유망직종이다. 본 행사는 채용설명과 비대면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하며 그린 뉴딜 우수기업 50개가 참여한다. 환경 이공계뿐 아니라 기획, 경영, 품질,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 채용 예정인 좋은 기회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62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21코엑스 ▲IFS 창업 박람회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다.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과정과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체계적으로 도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행사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취업 박람회로 누구나 걱정 없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알찬 방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온라인으로 자격증 공부하자!

비대면 수강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드론 ▷사진출처 – 인공지능신문

▶인기 sns ▷사진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에 많은 여파를 미치는 요즘 시대, 자격증마저 맘 편히 치러가기 어려워졌다.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 드론

드론은 수송, 촬영, 탐지 등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로 개발되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뉜다. 1, 2, 3종의 드론 조종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4종 드론 조종사 자격증은 2kg 이하의 무인 멀티콥터(드론)이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다. 무인 멀티콥터(드론) 4종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한국교통안전공사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약 6시간의 무인 동력비행 장치 4종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 20문항으로 학과시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심리상담사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해진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리상담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심리학개론 ▲임상 심리학 ▲이상 심리학 ▲이상 심리학 ▲교육 심리학 ▲심리 상담 및 진단 실무로 구성된 온라인 시험을 통과한 후 심리상담사로서 업무활동을 위한 상담의 요령과 방법, 내담자에 대한 심리검사지(MMPI 성격검사) 활용 방법 등의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하면 발급된다. 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1~4과목 객관식 4지 택일형, 5과목은 단답형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다.

 # SNS 마케팅 전문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중요성이 커졌다. 홍보와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 할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은 ▲온라인 마케팅 이해 ▲온라인 마케팅 환경의 이해 ▲페이스북 비즈니스 환경 세팅 ▲온라인 구매의 메커니즘 이해하기 ▲페이스북 광고 및 분석 방법 ▲키워드 추출 검색의도 파악 교재 ▲인스타그램 마케팅 기법 ▲네이버 키워드 광고 세팅 및 진행하는 법 ▲구글 애즈 광고 계정 세팅 및 운영방법 ▲블로그 개설 및 꾸미기 설정하는 법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방법 ▲블로그 스마트에디터 3.0 글쓰기 기능 이해 ▲유튜브 광고 종류 및 생성 방법 ▲포토스케이프 마스터하기 ▲실시간 온 사이트 마케팅과 통계분석에 대한 이해 ▲블로그 검색엔진 최적화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및 활용법 ▲저품질 블로그 예방법 ▲이메일 마케팅으로 구성된 6주 과정의 온라인 강의를 마친 뒤 100점 기준 60점 이상의 온라인 시험 성적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원격평생교육원
한국심리상담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책 속의 풍경 - 아몬드

감정의 공간, 아몬드

• 책 제목 : 아몬드
• 책 저자 : 손원평
• 출 판 사 : 창비

우리 모두에겐 감정을 느끼는 공간인 아몬드라는 곳이 있다. 아몬드는 우리 머릿속에 감정을 판단하는 부분이다. 뇌의 편도체라는 곳인데 아몬드 모양같이 생겼다.

이 책은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라는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이 아이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앓으며 태어났다. 이 병은 뇌의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났거나,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남들과 다름을 표현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남들과 다르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윤재에게는 감정을 잘 설명해 주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와 엄마가 있기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나간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24일에 할머니와 엄마는 끔찍한 사고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렇게 감정 표현 불능증인 16살 윤재는 혼자 남겨지게 됐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할뿐더러 자신의 행복과 슬픔을 느끼지도 못한다. 감정을 판단할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윤재에게는 강한 침착성과 공포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능력 아닌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교에 전학을 오자마자 짱이 된 곤이라는 아이가 윤재를 괴롭히고 때려도 윤재의 무서운 침착성으로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아이는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니 오히려 곤이에게 윤재가 무서운 대상이 된 것이고 구경하던 다른 애들도 놀라게 된다. 그런 사건 이후로 곤이는 윤재에게 호기심이 가득 찼다.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곤이는 윤재와는 다르게 감정을 잘 표현하고 화가 많은 아이이다.

사고 후 윤재 엄마가 운영하던 자그마한 헌책방을 윤재가 맡게 됐다. 그런 헌책방에 먼저 찾아오는 건 곤이였다. 곤이는 잡지 한 권을 계산대에 탁 올리며 윤재에게 말은 한다. 너 로봇이냐며 말을 꺼낸다. 그러면 윤재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해준다. 윤재도 곤이가 싫지는 않다. 헌책방 2층 건물에 빵집을 운영하던 심 박사님께서 곤이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심 박사에게 윤재는 곤이를 더 알고 싶다고 한다. 그렇기에 곤이가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잘해준다. 곤이도 윤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는지 거의 매일 저녁 찾아오곤 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곤 휙 가버린다. 사람은 극과 극에 끌리는 면모가 있다. 아마도 둘의 관계가 그런 끌림인가 보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곤이는 사라져버리고 흔히 나쁜 소굴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 곤이를 찾기 위해서 윤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곤이를 찾으러 간다. 비릿한 바다의 냄새가 풍기는 곳, 미로 같은 곳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육중한 철중 문에서 곤이를 찾았다.

곤이는 마르고 얼굴엔 멍이 가득한 채로 윤재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두 눈이 커졌다. 윤재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기 때문이다. 곤이는 윤재에게 얼른 나가라고 하지만 곤이가 갇힌 곳의 우두머리인 철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윤재를 보게 됐다. 철사는 곤이의 손에 칼을 쥐여주었고, 곤이가 윤재를 발로 차 벽에 박힌 못에 다리가 찔려 피가 난 윤재를 보곤 곤이는 엉엉 운다. 곤이는 그런 아이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여린 아이다. 곤이와 함께 지내면서 윤재도 감정을 느껴간다.

마지막 부분에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윤재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윤재도 눈물을 흘린다. 감정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 감정이 풍부한 아이가 오게 되면서 윤재의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 각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평범한 것이 더욱더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적당한 리액션을 해줘야 하고 또는 표정의 변화도 해줘야 한다. 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더욱더 어렵긴 하다. 그렇기에 우린 감정의 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주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8월의 크리스마스

사랑과 죽음 사이

• 영화 제목 : 8월의 크리스마스
• 영화 감독 : 허진호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허진호 감독의 작품으로 1998년 1월 24일에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남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등장인물은 한석규(정원), 심은하(다림)가 주연이다. 감독 허진호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덕혜옹주>, <행복>이라는 작품을 만들며 우리에게 옛날의 정겹고 따스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었다.

영화의 시작은 여름의 푸릇푸릇 한 나무 길 사이로 나 있는 도로에서 한석규(정원)가 빨간색 조그마한 스쿠터를 타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짧게 마무리 짓고 곧바로 한석규(정원)가 병원에 가 있는 모습을 비추어준다.

한석규(정원)는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동네에서 초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 좋은 아저씨이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의 아픈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약을 먹는 모습, 병원에 가는 모습만 비추어 준다. 사진관에 찾아온 심은하(다림)는 한석규(정원)에게 사진을 맡기고 급하게 사진을 뽑아 달라고 한다. 지친 몸을 이끈 한석규(정원)는 신경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심은하(다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기다리라고 한다. 이때부터 심은하(다림)은 그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심은하(다림)는 주차 단속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심은하(다림)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난 후로 초원 사진관에 자주 가곤 하였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초원 사진관의 선풍기 바람으로 쉬어가거나, 한석규(정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애정을 표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린 과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한석규(정원)의 오랜 친구 이한위(철구)를 찾아가 술 한잔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한위(철구)에게 귓속말로 "나 오늘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한위(철구)는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2차로 술집에 가 술을 또 마시곤 정신을 못 차려 경찰서에 왔다. 경찰서에서 술기운에 한석규(정원)는 이제껏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냈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슬프지 않으려고 슬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것이 이제 와서 터져버린 것이다. 그런 그에게 심은하(다림)는 계속 다가온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한석규(정원) 스쿠터를 고치러 갔다가 비를 보며 걱정을 했지만, 그 바람에 심은하(다림)를 만났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함께 길을 걷는다. 계속 그 날밤엔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왔다. 집에서 잠을 자던 한석규(정원)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깨어 아버지(신구) 방으로 가 잠을 청하였다.

아마도 어리광이 아니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비가 온 다음 날 심은하(다림)는 한석규(정원)의 사진관으로 향하여 말을 건넸다. 삐졌냐고 물었지만, 한석규(정원)는 아니라고 왜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심은하는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다고 한다. 그런 답에도 한석규(정원)는 너털웃음을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생각하면 아버지(신구)에게 리모컨 작동법을 알려주는 한석규(정원)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신구)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한석규(정원)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신구) 옆에 없을 걸 알고 있으니 그저 자신한테 짜증이 나고 답답함에 아버지(신구)에게 짜증을 내버리고 만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리모컨 작동법을 글자로 크게 적어 아버지(신구)에게 전해 줄 수밖에 없다. 영화는 끝으로 가서 점점 한석규(정원)와 심은하(다림)의 이별로 다가가고 있다. 한석규(정원)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되고 며칠간 사진관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그를 심은하(다림)는 그저 편지를 쓰며 기다리고 막판에는 짜증이 나 사진관 유리창 문을 깨곤 한다. 상태가 호전되고 사진관에 다시 찾은 한석규(정원)는 심은하(다림)가 쓴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만 보내지는 않고 보관을 해둔다. 그리곤 스스로 증명사진을 찍는데 그것이 그의 영정사진이 되고 그들은 그렇게 이별을 하고 초원 사진관을 비추어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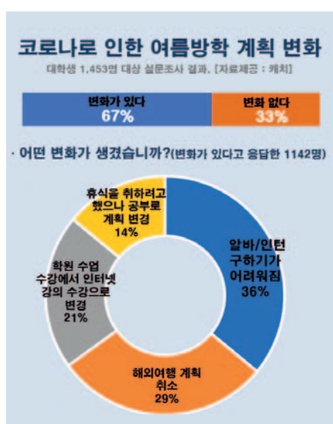
앞서 말했듯이 한석규(정원)가 직접적으로 아픈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보곤 유추를 할 수 있고 나타내지 않았기에 더욱더 아릿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주연 수습기자

코로나19로 바뀔 방학

코로나시대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낼까?

▶여름 인기 여행지인 몰디브 ▷사진출처 – 여행블로그 백사장



▶코로나로 인한 여름방학 계획 변화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도 지나 방학 시즌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다. 이번에는 전과 같은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방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강만을 기다려오며 긴 방학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여행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으며 다 같이 밥 한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막 신입생이 된 20학번, 21학번 학생들도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 학교 MT나 새내기 배움터, 회식 등이 금지되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느끼며 자신이 생각했던 방학 동안의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

해외여행

대학생의 방학에는 고등학생의 신분보다 더 자유롭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가까운 일본이나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나 혹은 유명한 관광의 도시인 파리, 영국, 미국 등에 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행길이 막히고 타인과 선뜻 친해지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30일 '2021년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 26억 7000만달러에서 현재 25억 6000만 달러로 4.1% 감소함을 보인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28.8%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코로나19 3차가 대유행하면서 각국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선뜻 해외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당하게 된다. 필수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한 나라들도 있다. 또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 해외안전여행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친구들과의 단합여행

해외 말고도 국내에서 친구들과 당일치기 혹은 1박2일 정도로 펜션을 잡고 놀러 가는 경우도 많았다. 단합과 우정을 기르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항목이 생기면서 이것도 불가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항목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집들이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그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실내외 구분 없이 동일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안되며 정확하게는 '친목 형성'이라는 명분에 의해 모이면 안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

방학이 되며 너도나도 단기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으로 몰려든다. 평상시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취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노려 운전면허 등의 자격증 시험을 노리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맞춰 운전 연수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를 겨냥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야간반, 특별 단기 속성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등록 인원 중 여성의 비율도 높아져 여성 강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종을 선택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을 나가거나 사람 많은 곳에 모이기 어려우니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나가지를 못하니 '코로나가 끝나면 입어야지'라는 생각과 '나가지 못하니 이거라도 살 거야'와 같은 보상심리가 작용해 대학생들의 인터넷 쇼핑률이 늘고 있다. 에이블리, 브랜디와 같이 각종 쇼핑몰들을 한 곳에 모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무조건 무료배송이라는 홍보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살았던 학생들이 좀 더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기존에는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사거나 직접 살펴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로 의류를 구매한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보고 살펴볼 수가 없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원단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소비하는 형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저축보다는 소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3월 29일 발표한 '2020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4.7점으로 나왔다. 금융이해력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것이다.

청년층은 '저축보다는 소비', '돈을 쓰기 위해 존재', '미래보다는 현재 선호' 등의 소비 중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취준생을 포함한 대학생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 목표 점수인 60.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욜로(You Only Live Once) 성향이 뚜렷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1명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시작한 이유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평균적으로 141만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중 40%는 수익을 보고 있다고 했으며 33%는 손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대학생 중 35%는 감정 기복이 심화되고 14%는 학업, 알바 등 일상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으며 10%는 중독 증세까지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나 홈트(홈 트레이닝), 온라인 쇼핑몰이 흥행하고 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축 제·공 연 소 식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 전통음악의 밤

• 기간 : 2021. 06. 10.(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제18회 부산국제연극제

• 기간 : 2021. 06. 11.(금)~06. 20.(일)
• 장소 : 영화의전당
• 주최 :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제34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 기간 : 2021. 06. 11.(금)~06. 20(일)
•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 주최 : 부산일보사

국악 콘서트 『육사씨미』 – 부산

• 기간 : ~2021. 06. 24.(목)
•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 주최 : 해운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세지〉

• 기간 : 2021. 06. 24.(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 대니 구의 커넥션

• 기간 : 2021. 06. 29.(화)
• 장소 :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주최 : 금정문화회관

2021 문화가 있는 날 –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 기간 : 2021. 06. 30.(수)
• 장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변화를 맞이한 우리 학교

학교 내의 크고 작은 변화

▶잉글리시 카페

▶컨츄리 꼬꼬

▶도서관 CU

성인이라면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벅찰 때가 다반수이기에 우리들은 학교 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학생들. 하지만 학습 부분에서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으며 늘 만나는 사람들 외에도 경제적인 면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적은 돈으로 만족스럽게 배를 채워 주시는 학교 식당 직원분들이나, 과제로 인해 항상 바쁘고 피곤한 학생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커피를 제공해 주는 카페처럼 그 뒤편에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교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잉글리시 카페

잉글리시 카페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산학협력관에 위치했던 잉글리시 카페가 디자인 홀로 이전했다. 옛날에는 독립적인 상가로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곳에서는 건물 내부 1층에 위치하게 돼 학교 내 카페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다.

이전 카페와는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에 아직은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비교적 작은 공간이긴 했어도, 동시에 많은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 출입구가 여러 개라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채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 위치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다. 그에 비해 디자인 홀은 테이블 수가 적어 전만큼 많은 학생들을 일시에 수용하기엔 벅차고,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손님도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쾌적하고 탁 트인 경관에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고,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비로소 완성도 높은 카페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12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곳이기에 학생들도, 주인분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변한 것은 아니기에 오래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바뀐 것은 단지 장소일 뿐이기에 여전히 학생들은 잉글리시 카페를 찾고, 사장님은 항상 학생들을 반가운 인사로 맞이해 주신다.

사장님께서는 '처음엔 어색하고 소외된 느낌이 들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내가 있을 자리라고 느껴진다. 학생들의 반가워하는 인사에 더욱 힘을 내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추억을 쌓게 될 잉글리시 카페. 모두 반갑게 인사하며 이를 맞이해 보자.

경영관 식당

배달 음식이나 외부 식당은 만 원은 기본으로 넘기는 곳이 허다한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교 내에는 오천 원 내의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우리 대학교에도 글로벌빌리지, 뉴밀레니엄관, 문화센터 그리고 경영관까지. 다양한 공간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경영관 학생 식당의 주인분이 바뀌게 되면서 경영관 식당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단은 메뉴가 적어 불만이 많았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빌리지 식당처럼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게 됐다. 키오스크에서 한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가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 맛에도 변화를 줬다. 전에는 심심함이 학식의 매력이었다면, 이제는 간간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영관 식당은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제는 먹고 싶은 메뉴를 위해 언덕 밑까지 먼 길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교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던트플라자 식당

스튜던트플라자 1층의 식당도 변화를 맞이했다. 학기 초까지만 해도 맘스터치가 있던 자리에 '컨츄리 꼬꼬'라는 치킨 요리 위주의 식당이 새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학교 안에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외부 식당은 드물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또 1인분 메뉴가 59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판매되기에 학생들은 더욱 반갑게 식당을 맞이했다.

컨츄리 꼬꼬에서 식사 중이던 한 학생은 '패스트푸드는 자주 먹기 부담스럽고, 다른 음식에 비해 가격이 비싸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여기는 1인분 메뉴는 물론이고, 배달해 먹으면 2만 원은 기본인 찜닭을 같은 양으로 13000원에 먹을 수 있어 좋다'라며 바뀐 식당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바쁜 일상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제나 시험 준비로 인해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 건강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 보는 건 어떨까. 또 가끔 학식이 지겨울 때, 친구들과 함께 컨츄리 꼬꼬에서 식사를 해결해 보자. 든든한 한 끼가 힘찬 하루를 만들어 줄 것이다.

도서관 CU

국제협력관 1층의 CU가 도서관 아래로 이전했다. 도서관 아래 에스컬레이터 옆, 깃발이 세워진 곳으로 들어가면 CU에 찾아갈 수 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규모도 크고 쾌적해 높은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데, 편의점이 생기면서 더욱 편리한 시설이 됐다. 또 이전하면서 전보다 더 깔끔하고 큰 규모를 갖추게 됐으며,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문이 더욱 편해져 전보다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계절이 바뀌며 나무의 색이 변하고, 차림새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 구석구석도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했다. 모든 변화를 좋은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누군가는 그 변화가 반가울 수도, 또 누군가는 낯선 환경이 어색하고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들의 쾌적한 대학 생활을 위해 새롭게 변화한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반갑게 맞이해 보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곳,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우리 학생들 모습에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김규리 수습기자

이번 학기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혼자만의 휴식부터 함께 하는 활동까지 즐겨보자

학기 중에 과제, 공부, 시험 준비 등으로 몸과 마음에 피로가 누적된다. 특히 종강을 했을 때쯤에는 지난 3~4개월 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잠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해보고 싶은 것을 미루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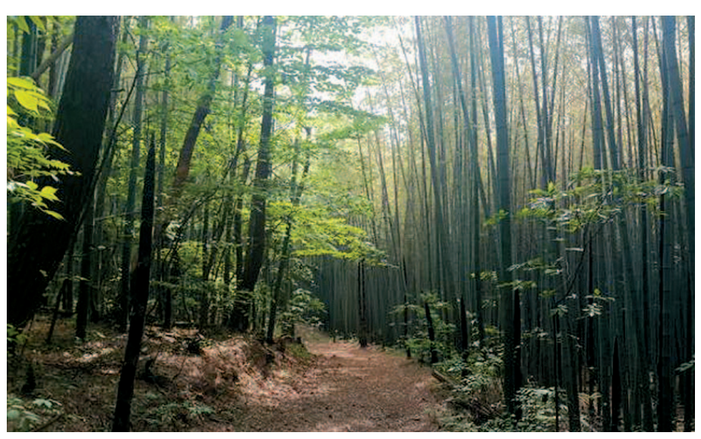
이렇게 고생한 한 학기를 보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선물을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선물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이번 학기에 고생한 나를 위해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충분한 숙면 취하기

종강을 맞이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사람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충분한 숙면 취하기'가 있다. 평소에 몇 개씩 맞추어두던 알람은 꺼두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숙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종강은 한 학기라는 하나의 챕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기 전에 놓인 중간 지점이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에게 충분한 숙면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 학기를 보내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방학 때 해보기 전에 충분한 숙면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자.

산림욕 하기

산림욕은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속을 걷거나 머물러 있는 일이다. 학기 중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많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보다는 방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일조량이 적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한다. 일조량이 가장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야외에 나가 집 근처나 공원, 운동장을 산책하거나 산림욕을 하는 것이 좋다. 숲이나 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무와 식물에서 방출되는 항균 화학물질 덕분에 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무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가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푸른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또한, 삼림 주변에서 정기적,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개선되고 신체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학기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산림욕을 하기 좋은 부산 기장군 아홉산숲 ▷사진출처 – 아홉산숲 홈페이지

부산에서 산림욕을 하기 위해 가보기 좋은 장소로는 기장군에 위치한 '아홉산숲'이 있다. 이 숲은 대나무숲, 편백나무숲, 삼나무, 은행나무 등의 인공림과 수령 100~300년 되는 금강송 등을 포함한 천연림으로 구성돼 있다. cbc NEWS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진주 시험림의 대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도심보다 7배 높았고,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편백숲의 피톤치드 농도와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피톤치드는 피로회복, 항균, 항염,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때에 산림욕으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자.

스크리나 와치 파티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집에서 시청하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형태는 지금의 시대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껏 혼자서 시청해왔던 콘텐츠를 나의 친구, 가족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스크리나 와치 파티'이다. 스크리나에 가입하면 왓차, 넷플릭스, 유튜브, 비메오, 웨이브, 티빙, 도라마, 라프텔 등이 연동되어 있어 와치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참여 비용은 무료이다. 방장이 되면 직접 콘텐츠를 고르고 참여자를 초대할 수 있다.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볼 수 있다. 혼자라면 카페에 '같이 볼 사람' 칸에 글을 올려 같이 볼 친구를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사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를 감상하였다. 콘텐츠의 오른쪽에는 함께 보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댓글 창이 있다. 누구나 초대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는 문화가 비활성화됐지만, 이렇게 스크리나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함께 시청하며 감상을 공유할 수 있다. 종강을 맞아 친구들, 가족들 혹은 잘 모르는 사이이지만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랜선 종강 파티를 즐길 수 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채팅을 하는 스크리나 와치파티 ▷사진출처 – 네이버 카페 스크리나 와치 파티

랜선 여행

종강한 후에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랜선 여행이다. 랜선 여행은 온라인으로 여행지의 영상을 시청하며 여행을 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하여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북한산·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VR 영상을 통해 국립공원을 실감 나게 만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국립공원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여행에 가서 기상상황,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나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경들도 사진을 통해 눈에 담을 수 있다. 랜선 여행을 통해 실제 여행을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끝난 뒤 여행을 꼭 가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힐링하는 것은 어떨까?

전시, 공연 보러 가기

학기 중엔 시간 내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 나를 위한 선물로 미술관 전시와 뮤지컬 공연 관람을 선택해보자. 현재 부산 서면 미술관에서는 작년 9월 12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파랑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 전시회는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희곡 '파랑새'를 타 작가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재해석하였다. 행복의 비밀을 찾아가는 스토리 전시이다. 전시회는 올해의 컬러인 '블루'로 꾸며져있다. 회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다양한 감성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파랑새의 원작 내용은 어린 남매가 성탄절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를 형상화했다. 코로나19로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문화생활은 뮤지컬이다. 뮤지컬 '위키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에서 초연을 하고 있다. 위키드는 화려한 세트와 특수효과가 있어 볼거리가 많은 공연이다.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이다. 나쁜 마녀로 알려진 초록마녀 엘파바가 실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오해받는 착한 마녀이고, 금발의 착하고 하얀 마녀 글리다가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독차지하던 허영덩어리였다는 상상력으로 새롭게 쓰인 이야기이다. 평소 뮤지컬에 관심이 있거나, 아직 한 번도 뮤지컬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엘파바'와 함께 잠시 현실을 벗어나 환상의 시간을 즐겨보자.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생활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방 안에서 많은 강의와 과제를 수행했다.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 각자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겠지만, 고생한 나를 위해 선물을 하자. 몸도 마음도 고생한 나를 위해 휴식을 주고 온라인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랜선 여행을 즐겨보자. 이번 학기 잘 보냈다면 잘했다는 의미의 선물을, 부족했다면 고생했다는 말과 다음 번엔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와 함께 위로의 선물을 하여주자.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의 마지막인 종강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척 대단한 일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예약–파랑새 전시회
위키드 홈페이지

오형지 수습기자

엄광산 맑은 소리

개강을 뒤로 하며 다가오는 종강

임수연(글로벌경영학부·1)

동서대학교 신입생들은 코로나와 함께 첫 수업을 맞이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은 비대면이라는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며 학생들과 교수님의 얼굴도 모른 채 혼자만의 공부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뻐한다. 또한 타지역 신입생들은 번거롭게 오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을 여러번 반복에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우리들의 시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해 보았겠는가! 하지만 장점은 비로소 단점이 되기도 한다. 영상을 보며 언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교수님께 바로 질문을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우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나태해지게 만든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 이건 혼자만의 싸움인 것이다. 중간고사가 지나고 우리들은 기말을 맞이한다. 종강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바랐던 대학 생활은 이런 것인가? 의문이 든다. 대학교의 꽃인 엠티와 축제, 학생들은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해 엠티와 축제는 취소되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실망하고 있다. 학생들이 친분을 쌓지 못할뿐더러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이보다 안정감 있는 생활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불안정하다. 맞다, 우리들은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몇몇 학생들은 동아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전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동아리는 활동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준 영향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작아질 필요는 없다. 우리의 존재를 더욱 빛내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들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지나고 우리들은 어색한 자리를 메꿔간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들은 이 시대에 적응해 나가며 동서대학교를 누비고 다닌다. 몇몇 친구들은 원래 알던 친구들과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다니기도 하며, 때로는 혼자 다니기도 한다. 어느 곳이든 우리들은 어딘가에 속해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끝에 모두를 만난다면 다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기대가 된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지금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다.

축제를 즐기지 못해 억울해도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우리들을 지나가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재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어 답답해하지만 점점 완화되어가니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축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종강이 다가온다. 20살이 된 처음으로 맞는 종강. 우리들이 바라던 학교생활은 아니었지만 종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들은 종강이라는 끝을 위한 준비 과정인 기말을 준비한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면인 수업이 늘어난다. 학생들은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를 맞이할 것이다. 비대면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해 종강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이다. 나는 종강을 맞이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나를 위해 투자도 해보고 아무렇게나 시간이 흘러가게 두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방학을 즐길 것이다. 다들 낯설고 떨리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 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라던 대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는 우리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언제 또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코로나를 우리들이 이겨내야 한다. 우리들은 종강이라는 끝으로 가기 위해 이 시련을 견뎌 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은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종강이라는 끝은 계속해서 다가온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개강'이라는 시작에서 '종강'이라는 끝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 우리들은 종강이라는 끝으로 다가가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죽비소리

원만하지 못한 학교생활, 종강은 다가온다

문은빈(글로벌경영학부·1)

2021년 3월 2일에 동서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생애 첫 개강을 하였다.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가운데 새로 사귀게 될 친구들과 앞으로의 공부를 배우게 될 교수님들의 강의와 교수님, 강의실 등의 만남이 설레었다. 끊이지 않는 코로나19를 뒤로 하며 완전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블라인드 수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가며 생활을 하였다. 이게 대학교 생활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였고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 살의 청춘에 맞이하는 대학교라는 틀은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할 뿐이었다. 그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이 아닌 교수님과 교실이 아닌 강의실에서 교과서가 아닌 전공 책 또는 교양 책 이란 명칭을 부르며 그렇게 나는 대학교의 개강을 맞이하였다.

고등학생 때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선배들이 빨리 종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저 부럽기만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학생 때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때에는 어찌나 선배들이 부러웠던 건지 종강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괜스레 그때의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 종강이 기다려지면서 1학년 때라고 마냥 놀기만 하고 싶진 않았다. 비록 지금도 많이 놀고는 있지만 놀더라도 의미 있게 놀고 싶었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큰 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자신도 없고 그저 사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일지라도 나와 연관을 지어 자기개발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싶다. 솔직히 계획을 세운다고 제대로 이루어낸 적은 없지만 내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종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고 후에 종강을 빨리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 후회되지 않을 것이다.

종강은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만, 그저 돈이 필요하여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냥 놀고 싶어 종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 또한 모든 좋은 결과는 오직 노력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 공부를 무척 싫어해 놀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공부가 싫지만 억지로 해내려 하였고 남들의 눈치도 봐왔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놀기만 한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노력이 큰 노력은 아니었어도 그러한 열정과 목표조차 없던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큰 성적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되려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관념에 박혀 살게 되었다.

대학교를 올라오면서 친오빠가 나에게 조언 하나를 내주었다. 내가 스무 살이 되면서 약 6~7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었다. 너무 세세하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큰 틀만 잡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오빠의 그 말이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나에게는 아주 큰 숙제이자 고민거리였고 자칫 잘못하여 너무 깊게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아직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때 들었던 내 생각과 들은 이후인 현재의 내 생각은 아주 다르고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을 하는 거라고 느끼기도 하였다.

나는 동서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최대한으로 경험하고 싶다. 종강이 그저 수업 안 듣고 과제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을 토대로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1학기의 내 모습이 머무르지 않고 발전된 모습으로 2학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노는 것도 자기 개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달려온 학우가 노는 것과 노는 것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학우가 있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목표에 열심히 달리는 마음가짐만 있었으면 한다. 어떤 노력이든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 자신이 열심히 했다면 그것에 따른 결과는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면 나온다.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여 노력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부응하는 결과도 나온다.

종강을 뒤로 여름 방학이 온다. 학년마다 마냥 신나기만 할 수 있고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보자. 그런다면 힘들었던 일들도 다 풀릴 것이다. 두려움에 떨며 살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현재부터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살자.

이달의 명언

마음의 역할은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다.
마음은 주인인
열정에 헌신해야 한다.
—레베카 웨스트

능력이 부족할 수록
자만심이 더 강하다.
—아하드 하암

네컷만화

종강

곧 다가오는 종강! 그에 맞게 이번 달은 종강이라는 주제로 만평 카툰을 작업했습니다. 동서인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6월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건강 염려하시면서 즐거운 종강 보내시길 바랍니다. :-)

사 설

코로나 블루 넘어 레드까지… 우리들은 분노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끈질긴 감염병이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만들고 개편하여 1년 넘게 지속하는 중에 있다.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가 줄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도 꺾일 추세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우울함이 아닌 분노와 짜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코로나 레드'라고 말한다.

코로나 레드(Corona Red)는 코로나19로 생겨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넘어선 상태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생겨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이 수차례 이뤄졌다. 우울증과 분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를 넘어 좌절, 절망, 암담함까지 느낀다는 뜻의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이 우울을 넘어 분노와 좌절까지 커진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50.7%)의 경험 비율이 남성(34.2%)보다 높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

따라서 우리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이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활동과 실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로 간의 적당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걱정과 불안, 강박 증상을 겪어선 안 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다.

억지로 불안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숨은 불안을 더 자극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법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화상전화, 온라인 소통, 문자와 편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서로의 소식을 나누거나 힘든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불안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근거가 없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Fake News)를 주의해야 한다.

내 활동, 거주지 인근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정보를 접하려 할 것이다. 전 세계로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들은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허위 정보들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뉴스를 찾는 데 지나친 에너지를 쓴다면 적절한 통제감 대신 오히려 불안과 부적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나 자신의 심리 방역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한 상황들을 무리해서 통제하려 들면 스스로에게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관심이 코로나19에 치우쳐 있어 자연스레 잃어버리고 외면당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실천 방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를 다시 돌리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목회 칼럼

종강

김 대 영 교목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불교적 세계관이 세상은 돌고 도는 윤회설이라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자리하는 직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전 3 : 1)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종식을 기대했던 코로나가 오히려 몇 차례의 유행을 지나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기말고사를 끝으로 학기가 마감되었다. 말 그대로 종강이다. 되돌아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1학기에 비해 당황하지 않고 사람도 적응하고 시스템도 정립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종강(終講)은 사전적으로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이라는 의미이지만 나는 종강을 일종의 매듭짓기라고 생각한다. 4년의 대학생활 속에서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리되는 매듭들이 필요하다. 종강은 바로 그 매듭짓기의 한 단계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종강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성적이다. 종강은 한 학기 동안 지내 온 자신의 학업의 결산이 나오는 때이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노력할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은 성적의 결과물에 안도하는 이도 분명 있을 테지만 노력한 만큼 결산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노력조차 없었다면 더 큰 후회를 결산하게 된다. 물론 후회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두 번째로는 휴식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낮뿐만 아니라 밤을 주셔서 쉬게 하셨다. 이러한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잘하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다.

인간은 모든 일에 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가 없이는 옳게 살 수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는가 철저한 준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생에도 종강이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전도서 12장 1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모스 4장 12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삶의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족하고 흠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곧 기회의 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워야 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는 복된 동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학생 인터뷰－본교 재학 중인 김진서 학생

해외 취업의 꿈을 위해 코세라와 동행한다!

Google IT Support 과정을 참여하고 있는 김진서 학생

우리 대학은 작년 10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동서대학교는 코세라(Coursera)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코세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00개 이상 해외 명문 대학의 4,200개 이상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동서대 신문사에서는 코세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현재 코세라에 참여 중인 본교 재학 중인 김진서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뉴욕 루스벨트 Cornell Tech 대학교에 방문한 김진서 학생

▶벚꽃 나무 아래에 있는 김진서 학생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 동서대학교 20학번 컴퓨터공학과 김진서라고 합니다.

Q. 코세라에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동서대학교 입학 초기부터 해외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자격증과 어학 성적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학문적 소양과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무 능력은 구글에서 주최하는 구글 IO 행사나 대만 컴퓨텍스 등을 참여하여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등 참여할 방법이 많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나 넓게 보는 능력을 키우고 싶었고, 학교에서만 학습을 하기보다 더 큰 범주에서 학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1학년 말, 모 교수님께서 저에게 코세라를 탐색해보길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구글에서 제작해 인증하는 Google IT Support 과정에 신청하였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쉽게 생각하여 컴퓨터의 전문가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초심자에게 컴퓨터에 대한 여러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코세라에 참여하셨군요. 코세라의 수업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많은 수업은 각기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수강 중인 강의는 Google IT Support라는 카테고리에서 5개의 모듈, 5주 차의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IT Support라는 각 부분을 담당하여 여러 부분의 퍼즐 조각을 맞추면 Google IT Support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Q. 코세라와 학교 강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코세라에서는 적극적인 질문이 어렵다는 점이 학교의 강의와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세라에서 질문할 순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참여자끼리의 토론이 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견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재로 수업하는 학교의 강의 방식을 배제하고 pdf나 추가 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아이패드로 노트 필기나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교재가 없으면 학습이 불편하거나 노트 필기 자체를 교재에 하는 학생에게는 코세라가 어려운 학습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코세라에 참여하시면서 코세라의 어떤 점이 좋다고 느끼시나요?

A. 코세라를 이용하면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동서대학교의 경우 타 전공 및 복수 전공에 대해서 신청 기간이나 이전 전공 취득 상태에 대해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코세라에서 학습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타 분야 및 전공에 대해서도 미국 공인 학교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물론 이는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학위 과정이라 당연하겠지만요.). 공대 학생들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MBA 학위, 애리조나 주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마스터 학위 등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의 사이버 대학교 학위처럼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학교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목표인 학생분들에게는 메리트가 될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코세라를 수강하려면 한 달에 부담스러운 가격일 정도로 비싸지만, 이 역시 학교에서 보전해 주니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학문적 소양이나 넓게 보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듣고 계신 강의가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A. 현재 듣고 있는 강의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결과를 낳은 뒤, 넓은 목적으로 본다면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가 신청을 넣은 것으로 새로운 인연이나 만남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CJ DIA TV에서 주최한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영알남' 님을 만나 유튜브의 전략 분석 및 능력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2020년 겨울 방학 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산호세 주립대학교가 함께한, 실리콘밸리 개발자 및 대학교수님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2021년 겨울 방학 백신 접종 후 출국하여 산호세 주립대학교에 방문해 교수님을 만나 뵙고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로 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코세라의 Google IT Support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저에게 꼭 도움이 된다고 저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어 제가 구글이나 구글 계열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걸로도 큰 그림을 만드는데 충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Q. 한 학기 동안 코세라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듣고자 하는 Google IT Support 과정은 코세라 측에서 8개월의 수강 기간을 가지고 수강하라고 한 매우 큰 강의이었고, 또한 개인적인 일과 학교 수업으로 인해 정확한 시간에 수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강의라는 점과 Mooc 강의의 보강 버전이라 생각해서 더 찾아 듣고 싶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코세라에 관심이 있으신 다른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예전에 읽은 어느 구절 중에, '로또를 사지 않으면 1등의 확률은 0이지만, 그것을 샀다면 그것으로 확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코세라도 이 구절 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분들께서 학교 강의에 대해 부족함이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부가적인 요소가 마땅치 않다면 코세라 강의를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라서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워도 부딪혀 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세라의 강의 중 'Google IT Support'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서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학생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끝에, 자신이 바라는 빛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오형지 수습기자

■ 조교 선생님 인터뷰－관광학부 문지윤 조교

바뀐 수업 방식, 바뀐 대학 생활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방식이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개편된 채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면과 비대면이 번갈아서 진행되는 헷갈리는 수업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부터 만족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님이나 학생이 아닌, 그 사이에 놓인 학부 사무실의 조교들은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동서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광학부 로고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관광학부 문지윤 조교입니다. 관광학부는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관광계열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컨벤션학과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Q. 현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강의실 수용 인원의 절반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수용 인원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업은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일부는 원격 수업으로,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며, 관광학부에는 이번 학기에 총 세 과목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비대면 수업과 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나요? 있다면 대부분 무슨 내용이었나요?

A. 한창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는 학생들이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원했기에 투표로 해당 수업 진행 방식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의 제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어느 곳이나 그렇듯, 초반 Zoom 사용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학교와 교수님, 학생들의 힘으로 극복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조교님 입장에서 이번 비대면 수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엔 낯설었겠지만, 화상 수업에 학생들이 적응하고 나니 어디에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업 이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강 등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의욕이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Q.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근무에 큰 변화나 애로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근무에 가장 큰 변화는 대면으로 진행하던 업무들을 가능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Zoom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어느 곳이나 다 패닉이었고, 학생들도 어색했겠지만, 저희도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와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도 잘 적응해 줘서 보다 더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지금 특히 20학번과 21학번 학생들은 상상하던 대학생활과 많이 달라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얼른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전처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활기찬 관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Q.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교수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과 다양한 경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루 빨리 전처럼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처럼 학생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김규리 수습기자

성경 속 인물－말라기

▶말라기 서른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 꿈, 믿음, 생각, 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라기는 성경의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두 번째로 나오는 권으로, 구약의 마지막 권이다. 하깨·즈가리야와 함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수집된 예언서이다. 예언자 말라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는 알 수 없다. 말라기의 어원인 히브리어 '말라키'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이며, 어느 특정 예언자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호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70인역에서는 이 표현을 '말라키야(하느님의 사자)'가 축약된 것으로 생각하여 '말라키아스'라는 표기를 썼고, 이는 라틴어 표현에도 영향을 주었다.

'말라기' 자체가 히브리어 표현을 임차한 것이므로 '말라'가 아니다. 가톨릭 성경에선 '말라키서'라고 하므로 '말라기'까지 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책 첫머리에 "야훼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경고"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라기'라고 불리는 예언자가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말라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나의 사자'란 이름으로 통칭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였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요나탄 벤 우지엘의 타르굼(Targum)에서는 이를 서기관 에즈라로 풀이하였고 예로니무스와 장 칼뱅도 이 같은 견해를 따랐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전에서 이미 예식이 거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빌론 유배 이후 제2성전이 완성된 기원전 516-515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 집회서에 "열두 예언자들"(집회서 49 : 10)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180년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귀환 공동체의 종교·정치·사회 상황과 유사한 것을 들어 기원전 480-500년경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냐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신앙생활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경읽기를 수십 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충분히 속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와야 진정한 것이지 숙제처럼 생각해 혹은 자기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고행처럼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 말, 행동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말라기 3-4장].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다.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보잘것없이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남아있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왕국의 도래는 요원해 보였으며,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시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인다. (비교 : 사 59 : 9-11).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를 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 말라기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말라기 1 : 11).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말라기 2 : 8].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말라기 2 : 10].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라기4 : 2].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4 : 6].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말라기
네이버 블로그－매일성경

최혜미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선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10.(목)
• 응모대상 : 만 40세 이하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 접수기간 : ~2021.06.11.(금)
• 응모대상 : 장애인 단체 활동가/대학생
• 공모분야 : IT/소프트웨어/게임

■소담 영화제 창작 영상물 공모
• 접수기간 : ~2021.06.11.(금)
• 응모대상 : 내·외국인 누구나/일반부
• 공모분야 : UCC

■2021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13.(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만화/디자인/UCC

■제7회 마음건강·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18.(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사진

■평화정책 UCC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18.(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UCC

■제25회 한국해양문학상 작품공모
• 접수기간 : ~2021.06.25.(금)
• 응모대상 : 20세 이상의 남녀
• 공모분야 : 시·시조·소설·희곡

■제6회 세계일보 UCC&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25.(금)
• 응모대상 : 청소년부, 대학·일반부
• 공모분야 : UCC, 사진

■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25.(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IT/소프트웨어/게임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접수기간 : ~2021.06.30.(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

■2021년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30.(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광동제약] 음료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6.30.(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브랜드/네이밍

동서인들이 뽑는 우수기사!

마음에 여운이 남는 혹은 인상 깊은 기사를 투표해 주세요.

6월은 종강이 있는 달입니다. 어느새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차오르는 감정처럼,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코 끝을 맴도는 향기처럼 무언가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여운은 마음속에서 나누는 작별 인사 같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요즈음,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겨준 혹은 인상 깊은 기사를 투표해 주세요.

예 시

1면 ETRI, 공동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또는 조은빛 기자

기사 제목이나 기자 이름을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짧은 이유와 함께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편집국장 : 010-6771-8237
※ 6월 29일까지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6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